



KIA 연패행진 흥행에 찬물



최고 빅카드 주말 잠실 두산전도 관중 급감 KBO 올시즌 관중 650만 유치 목표 빨간불 11연패 SK전 2119명 그쳐 최소관중 기록도

전국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부진으로 프로야구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프로야구 흥행의 '보급 수프'로 꼽히는 KIA가 팀 최대 연패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사이 관중석 분위기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지난 6일 KIA와 두산의 대결이 벌어진 잠실 구장에는 1만155명이 입장하는 데 그쳤다. 두 팀이 잠실에서 시즌 개막전을 벌였던 3월 27~38일 이를 연속 만원관중이 들어찼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관중석이 비었다.

호랑이와 곰의 대결이 펼쳐졌던 6월 마지막 주말 3연전에서도 입장객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첫 날 잠실 구장에 1만8314명이 찾았지만 KIA의 연패 숫자가 늘어

나면서 주말경기에도 불구하고 이후 두 경기에서 1만7821명, 1만5969명이 찾는데 그쳤다.

지난해 KIA는 신바람 행보를 하면서 군산 경기를 포함해 21번의 홈 만원사례를 장식했다. 또 67경기의 원정경기에서 총 102만4219명을 불러들이며 8개 구단 최고의 원정경기 동원 관중력으로 프로야구 흥행 돌풍의 주역이 됐다.

올 시즌에도 초반 흐름은 좋았다. 4월 4일 롯데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5월까지 7차례 매진이 이뤄졌다. 하지만 6월 월드컵 개막과 함께 KIA의 추락이 시작되면서 관중수가 급감했다. SK에게 11연패를 당했던 6월 마지막 날에는 무등경기장에 2119명이 찾으면서 올 시즌 최소 관중을

기록했다.

2010 시즌 개막에 앞서 한국야구위원회는(KBO)는 650만 관중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KIA는 지난해 58만2005명 보다 7.1% 증가한 62만3100명을 유치 목표로 내세웠다. 올 시즌 홈에서 67경기를 치르게 되는 KIA는 36경기를 소화했다. 일정의 54%가량을 소화했지만 누적 관중은 25만9193명에 그치고 있다. 경기당 평균 관중수도 지난해 8818명에서 6월 현재 7199명으로 줄어들었다.

프로야구는 6월까지 316경기를 치르는 동안 364만7805명(전년 대비 7% 상승)의 관중을 동원했다. 월드컵 기간 30% 가량 관중이 감소하면서 초반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2010시즌 목표로 세운 650만 관중 동원에 성공하려면 순위싸움이 한창 전개되는 7월의 인기몰이가 중요하다.

하위권으로 주저앉은 KIA가 기사회생하면서 여름 흥행 돌풍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2세계청소년야구대회 한국서 열린다

대한야구협·서울시, 사상 첫 유치 성공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국제야구연맹(IBAF)은 7일 대한야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회 유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제25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의 한국개최 승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BAF가 승인

한 국제 대회 개최는 지난 1982년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이후 두 번째다.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는 국제야구연맹(회원국 118개국)의 개최로 2년 마다 열리며, 1981년 미국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됐다. 대회 참가자격은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한국은 초대대회 우승팀으로 1994·2000·2006·2008년 대회 정상에 올랐다. 11차례 우승을 차지한 아마진구 쿠바에 이어 두 번

째다. 2012년 대회는 대한야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 24회 대회는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캐나다 밴더베이에서 열린다.

대표팀은 최재호 신일고 감독을 사령탑으로 고교 특급 좌완 유창식(광주일고)을 비롯해 투수 7명, 포수 3명, 내야수 6명, 외야수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12일부터 강화훈련에 들어가는 대표팀은 21일 현지로 출국해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백명의 사이클 선수들이 7일(한국시간) 투르 드 프랑스 3구간(벨기에 완즈~프랑스 아렌버그)을 무리지어 달리고 있다.

진흥고 대봉기 16강 탈락

광주진흥고가 대봉기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에서 탈락했다.

진흥고는 7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상원고와의 대회 16강 경기에서 5-12로 8회 콜드게임패를 당했다.

진흥고 선발 고재환이 1-1로 맞서던 3회말 연속 안타를 맞았다. 1사 2-3루에서 볼넷 두 개를 연달아 허용하며 밀어내기로 점수를 내준 고재환은 상원고 조영완에게 싸늘이 3루타를 맞은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진흥고는 추격에 실패하며 5-12로 콜드패를 기록했다.

한편 전남 대표 순천효천고는 8일 오후 6시30분 강릉고와 8강 진출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양용은 브리티시 오픈 전초전 출격

오늘 PGA 존 디어 클래식 개막

2010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를 1주 앞두고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40)와 양용은(38)이 각각 다른 전초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경주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버스의 디어런 TPC(파71·7257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에 나간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최경주는 평균타수 4루(69.85타), 그린 적중률 10루(69.55%), 평균 버디수 16루(3.88개) 등 전

부면에서 고른 성적을 내고 있어 PGA 투어 홈페이지가 선정한 우승 후보 1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도 지난주 AT&T 내셔널에서 4위에 오르는 상승세를 몰아 PGA 투어 생애 첫 우승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양용은도 유럽으로 날아가 8일(이하 한국시간) 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로치 로몬드 팜프장(파71·7149야드)에서 개막하는 유럽프로골프투어 바클레이스 스코틀랜드 오픈에 출전한다.

지난해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화려한 한해를 보냈던 양용은은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15개 대회에 출전해 톱10 두 차례에 진입하는데 그쳤다.

이번 대회에는 영건 노승철(19·타이틀리스트)과 올해 브리티시아마추어골프대회 우승자 장연진(20), 2009 US아마추어챔피언십 우승자 안병훈(19), 이진명(20·캘러웨이)도 함께 출전해 아니 엘스(남아공), 비제이 싱(피지), 마르틴 카이머(독일), 이시카와 료(일본) 등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연남뉴스

볼트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뒤 은퇴"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4·자메이카)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끝난 뒤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볼트는 7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내 목표는 앞으로 두 차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다. 2016년, 브라질에서 아마 은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말리워기와 400m는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도전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기록을 계속 깨다 보면 지루함에 빠질 공산이 크다. 난 스포츠의 전설이 되고 싶다"면서 "내년 대구 세계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이 끝나면 다른 종목에 도전할 것"이라며 말리워기와 400m 정복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연남뉴스



'투르 드 프랑스' 허쇼프트 3구간 우승

노르웨이의 사이클 스타 토르 허쇼프트(32)가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3구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허쇼프트는 7일(한국시간) 벨기에 완즈에서 프랑스 아렌버그로 이어진 213km 구간을 4시간49분38초 만에 주파해 1위로 끝냈다. 3구간을 평균 44.1km로 달린 허쇼프트는

지난해 이 대회 6구간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실력과 선수다.

지난해 우승자인 알베르토 콘타도르(스페인)은 허쇼프트에 1분13초 뒤진 13위로 끝냈고, '사이클 영웅' 랜스 암스트롱(미국)은 선두에 2분58초 늦은 기록으로 32위에 올랐다.

/연남뉴스

인마음법률경제(주)

지역별, 용도별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원하시는 물건을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층수가	비고
광안구	무신동	대지 208	229㎡	1941㎡	3층
	수원동	대지 2579	4251㎡	3911㎡	3층
	화양동	대지 283	2294㎡	127㎡	3층
	주안동	대지 363	2294㎡	1941㎡	3층
남구	수리동	대지 10009	728㎡	121㎡	3층
	월산동	대지 388	594㎡	2942㎡	3층
	전원동	대지 11900	392㎡	2911㎡	3층
	우암동	대지 281	1941㎡	727㎡	3층
북구	대운동	대지 337	9㎡	582㎡	3층
	안남동	대지 1289	392㎡	1941㎡	3층
	우암동	대지 287	4251㎡	3911㎡	3층
	우암동	대지 868	941㎡	6941㎡	3층
곡성군	삼가면	대지 3926	392㎡	285㎡	3층
	울구면	대지 3788	1941㎡	825㎡	3층
	대운동	대지 22116	1941㎡	825㎡	3층
	신안동	대지 1532	392㎡	2941㎡	3층
나주시	신안동	대지 105124	5㎡	4㎡	3층
	왕곡면	대지 1850	229㎡	2㎡	3층
	대운동	대지 2000	229㎡	121㎡	3층
	월산동	대지 864	621㎡	425㎡	3층
영광군	월산동	대지 376	621㎡	327㎡	3층
	대운동	대지 1889	5㎡	582㎡	3층
	월산동	대지 376	229㎡	1941㎡	3층
	고신면	대지 3027	4251㎡	285㎡	3층
장성군	월산동	대지 2472	229㎡	1941㎡	3층
	신안동	대지 3838	825㎡	2941㎡	3층
	신안동	대지 2786	1941㎡	727㎡	3층
	신안동	대지 2786	1941㎡	727㎡	3층
해운대	도곡동	대지 5308	392㎡	1941㎡	3층
	동구동	대지 15789	1941㎡	121㎡	3층
	동구동	대지 3088	2㎡	121㎡	3층
	도곡동	대지 9820	1851㎡	1941㎡	3층

※ 위치: 광주역 전남입보 4층 062) 525-8880 010-8640-3990

무등빌딩임대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앙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 갈근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디아미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높여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유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7종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알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부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시간 전에 정을 복용하면 1-5가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전혀 안되는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입점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발기가 잘되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알을 복용후 너무 술기, 담배, 커피, 설탕, 꿀은 피하는 것(당뇨환자)이 좋습니다.

※주문즉시택배 / 무료배송

상담 주문 02)2231-0533 010-7190-8138 / 010-7770-8138 농협 707019-56-138536(김삼한)